# BoostCamp 2 주차 발표

Delegation 패턴의 최고장점 => 엄격한 구문!

확실하게 정의된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의 함수 들만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처리

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으면? =>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낼 수 있다!!

해당 컨트롤러의 범위 내에서만 프로토콜이 정의됨 => 어플리케이션의 통제흐름을 파악하기 가 매우 용이함

프로토콜 메소드로부터 리턴값을 받아낼 수 있음 => 델리게이트가 뷰컨트롤러에 도움이되는 정보를 돌려줌

그러나 ...

기능 좀 몇개 쓰려는데 ...

#### 정의해야될 것이 많다

- 1. 프로토콜 정의
- 2. 델리게이트를 위한 프로퍼티 ( 뷰 컨트롤러 내에 )
  - 3. 델리게이트 메소드 안의 구현코드 작성

조심해야될 것이 많다 객체 할당 해제시 델리게이트 nil 설정 => 실패하면 해제된 객체에서의 메소드 호출 로 메모리 충돌발생 가능

Key Value Observing
=> 특정 객체의 프로퍼티의 값을 관찰하여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를 감지

특정 객체의 변수값에 이벤트를 등록한다??

프로퍼티의 값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여러 객 체간의 동기화를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음.

직접 작성하거나 생성하지 않은 객체나 접근 권 한이 없는 객체의 변화에 대처가 가능

관찰중인 프로퍼티의 변화 전과 후의 값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반응을 취할 수 있음

하지만 ..

관찰하고자 하는 프로퍼티들은 문자열을 이용 해 정의됨 => 컴파일타임 경고를 확인해볼 수 없음 => 에러 확인이 용이하지 않음

다수의 프로퍼티의 상태변화를 관찰할 때 복잡 한 if 구문으로 처리해야함

결론: KVO의 남발은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함

감사합니다